



일주문



**제5회 모악축제 열어**  
도영 (사)파라미타 전북지부 장은 20일 금산사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제5회 모악 축제'를 개최한다.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  
혜충 부산 용호종합복지관 장은 8일 복지관 마당에서 관내 어르신 3백여 명을 초청해 '경로 잔잔치'를 가졌다.



**강릉시암연 회장 취임**  
청우 등명락가사 주지는 4월 26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릉불교사암연 합회 제2대 회장에 취임했다.



**선원사 대웅전 상량식**  
성원강화 선원사 주지는 11일 600여 년 만에 대웅전 상량식을 거행했다. (032)933-8234



**'무연관' 강의**  
원광 김포 선경암 주지는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오후 2시 인천불교청년회관에서 <무연관>을 강의한다.

**대행스님 18일 동국대서 법문**  
대한불교 조계종 한마음선원장 대행 스님이 18일 오후 3시 30분 동국대 중앙당에서 법회를 갖는다. 동국대 정각원이 매일 마련하는 고승초빙 법회에서 대행스님은 '죽어야 나를 브리다'를 주제로 법문한다. 활발자녀의 길을 열어줄 이번 법회에는, 동국대 교직원들은 물론 관련 신학단체 종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 자나카 스님 위빠사나 특강**  
미얀마의 현존 최고수행 지도법사로 추앙받고 있는 우 자나카(71) 스님이 20일 오후 3-6시 서울 불국동 한국요가연수원(원장 이태영)에서 위빠사나 수행법에 관한 특별강연을 갖는다. 우 자나카 스님은 14세에 출가하여 근세 미얀마(구 버마) 대선사 중 한 분이었던 마하시 사야도(Mahasi Sayadaw)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이후 40년간 미얀마를 비롯해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명상지도를 해오고 있다. 95년 미얀마 정부로부터 최고대수행 지도법사 칭호를 받았으며 현재 미얀마 참매선원장으로 있다. 02888-5087



**金대통령 혜초기념비각 휘호 전달**

중국 서안 선유사에 건립되는 혜초 스님 기념비의 비각 현판으로 새겨질 김대중 대통령의 친필 휘호 '신라국대덕고승혜초기념비정(新羅國大德高僧慧超紀念碑亭)'이 3일 박준영 청와대 공보수석에 의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에게 전달됐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원택 스님과 조계사 주지 지홍 스님이 함께 했다. '조계사'는 다음날인 4일 대통령 휘호 사본을 선유사에 전달했으며, 혜초기념비 제작식은 6월13일 선유사에서 거행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정보보존은 으뜸 불사"**

'자랑스런 박물관인 상' 받은 범하 스님



난해 원간하는 등 불교문화재 보존과 계승에 힘써 왔다. "개인적 영광이라기보다 불교계가 문화재 보존에 더욱 힘써 달라라는 뜻"이라며 겸손해 하는 스님은 "정보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거나 없어지면 다시 찾을 수 없다. 스님이나 신도들이 앞장서 정보 보존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최근 드러난 대규모 문화재 밀매단 검거에서 보듯 여전히 줄어지지 않는 불교문화재 도난사건에 특히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아무리 잘 지켜도 훔치는 사람을 당하기 역부족이다. 단순히 재화적 가치를 따지기보다 성리는 예배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 민족 전체의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시상식은 21일 오전 11시 국립중앙박물관 사회교육관 강당에서 열린다. 권영진 기자

"불사 중에 제일 중요한 불사는 바로 정보 보존입니다. 불자라면 당연히 집 한 칸 더 짓는 것보다 정보 보존에 먼저 힘써야 합니다." 통도사 성보박물관장 범하 스님이 3일 한국박물관협회(회장 김종규)로부터 '제4회 자랑스런 박물관인 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스님은 10년 불사 끝에 11개 본 말사와 대학 및 사립박물관에 소장된 불화 1천7백여 점을 사진으로 정리한 <한국의 불화> 시리즈 1차분 20권을 지

**"물질·정신 베푸는 일도 수행"**

20년째 경로잔치 도안사 혜자 스님



상계동 수락산 자락의 작은 절, 도안사. 인근 마을 사람들에겐 경로잔치를 여는 절로 알려져 있다. 7일에도 경로잔치를 열었다. 올해로 20년째다. 노원구 관내의 어르신 1000여명이 수락산 동막골 유원지에 모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은 도안사 주지 혜자스님(조계종 문화부장)과 신도회에서 냈고, KBS 코미디언 이정표씨가 무보시로 진행을 맡았다. 혜자스님이 매년 경로잔치를 열게 된 계기는 작은 데서 시작했다.

"할아버지들이 수락산에 올라와서는 점심도 드시지 않고 내려가더라고요. 매일은 못하더라도 1년에 한번은 점심공양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스님은 "신도들이 돕지 않는다면 하지 못할 일이지. 공덕이 된다면 모두 신도들의 몫입니다"며 신도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10여년 전부터는 효행상도 시상하고 있다. 유산 문제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세상에서 그대로 효심을 돌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정성운 기자

**제5회 만해상 수상자 선정**



故 정주영 회장



백낙청 교수



이형기 교수



정영호 교수



정우 스님

- 평화상 故 정주영 회장
- 실천상 백낙청 교수
- 시문학상 이형기 교수
- 학술상 정영호 교수
- 포교상 정우 스님

만해사상실천선양회(총재 정대스님)는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금강산 관광사업과 두 차례의 소떼 방북을 통해 남북화해의 물꼬를 튼 공로를 인정해 故 정주영씨를 제5회 만해상의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실천상에는 <창작과 비평>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우리 문화의 발전과 사회의 민주화에 영향을 끼친 점을 인정받은 서울대학교수 백낙청 씨가 선정됐으며, 시문학상은 10여년에 걸친 오랜 부형 생활속에서도 불교의 창작정신을 발휘해 후배문인들의 귀감이 된 동국대 교수 이형기씨(시인)가 선정됐다. 또 30여년의 저서와 3백여편의 논문을 통해 국내 고고미술학의 초석을 다진 정영호 문화재위원(한국고원대명예교수)이 학술상을, 현대 도심 포교의 새 장을 연 정우 스님(서울구룡사 주지)이 포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인터뷰 부디뉴스 참조) 시상식은 8월 6일 백담사에서 열리는 제3회 만해축전에서 거행된다. 이은자 기자

**"전쟁 잔혹함 잊어선 안돼"**

원폭 피해자 시민모임 한우 스님



지난 달 28일 대구 변호사공제회관에서 국내 처음으로 창립된 '원폭피해자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공동대표를 맡은 한우 스님(실천불교 대구경북총가회장, 남지장사 주지)은 "군인도 아닌 수많은 시민이 아무런 이유 없이 죽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살아오고 있는데도 아무도 사죄하지 않는다"며 "원폭피해 문제는 단지 보상을 받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잔혹함을 밝혀 이를 인류가 깨닫도록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29일 일본에 건너가 재일 한국인청년연합회와 함께 '한국인 원폭피해보상법' 제정, 동아시아의 비핵화를 통한 평화 촉구, 핵무기 개발 및 보유·사용에 대한 반대활동 등 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053768-9920 김재경 기자



불교방송 '일일무료 한방병원'

불교방송은 4월 28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일일 무료한방병원'을 열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당뇨병 전문 클리닉 미래한의원과 비만·통증을 리닉인 향기나무한의원, 경원대학교 한의과대학 대학원생 등의 로진 17명이 참석해 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이들은 앞으로 무료시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불교사회봉사회 효실천 캠페인

(사) 21세기 한국불교 사회봉사회(이사장 설산는 어버이날인 8일 종로구 거리에서 '부모은중경' 카세트테이프 5천 개를 시민들에게 나눠주며 효실천 캠페인을 벌였다. 관련 봉사회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구민회관에서 형편이 어려워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부부들을 대상으로 무료합동결혼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

월간 불광과 목야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제7회 전국 어린이 부처님 그리기 대회 가 5일 법주사에서 1천5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우목은총상(문화부장관상)은 김동훈군(아산 동덕 초등 3년), 으뜸상(불교위원장상)은 조애희양(천안 상흥초등 5년), 불교 조계종 포교위원장상은 한미린양(보은 삼선초등 6년)이 각각 차지했다.



월드컵 성공기원 법회 및 경로잔치

김계 흥복사(주지 경전)는 1일 2002년 한 일 월드컵 성공기원 법회 및 제2회 불교 문화제와 경로잔치를 열었다. 5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행사는 봉축법회에 이어 덕암 사물놀이패와 전주 국악 연구소, 백성대 보컬 가희의 공연, 살풀이춤, 탐들이 순으로 진행됐다. 조기식 전북지사장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釋迦世尊께서成道할  
雪山玉石으로造成한國瑞  
慈悲하신고透徹智慧가  
具足하신 無上圓滿聖像  
이시다  
二五〇五年二月二十一日  
小袖 西箱謹書

추진서



고불승림 방심 시용 문수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